



짹짹 양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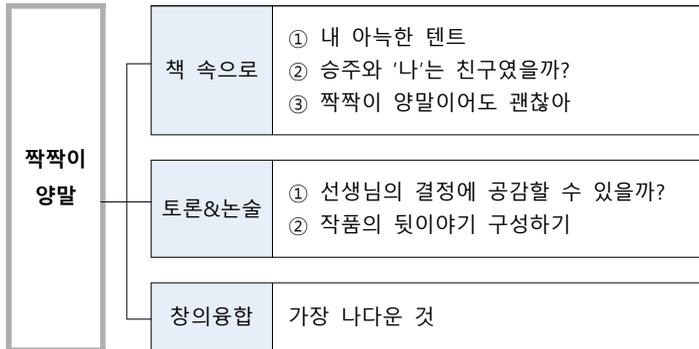
- * 글: 황지영 * 그림: 정진희
- * 출판사: 웅진주니어 * 정가: 10,000원
- * 분량: 184쪽 * 대상: 초등 5학년

· 책 소개

『짹짹 양말』은 더없이 솔직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초등학생 사이의 우정과 관계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척 하면 척, 둘도 없는 단짝 승주와 5학년에 올라와서도 같은 반이 된 하나. 하지만 운명이라 생각했던 둘 사이에 유리라는 존재가 끼어듭니다. 하나는 유리에게서 승주를 되찾으려 애쓰다 다른 아이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그런 하나의 곁을 맴도는 정균이와 자신을 “직업 부적응자”로 소개하는 담임 선생님은 매일 위로에 더해 신선한 혼란을 하나에게 건네옵니다. 짹짹 양말 신세가 되어 바라보니, 세상은 무엇 하나 당연하지 않은 의문투성이. 단짝이란 무엇일까? 우정이란 무엇일까? 꿈이란, 씩씩함이란, 운명이란, 나다움이란? 하나는 자신의 눈앞에 던져진 사소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에 하나다운 답을 내려 나가는데…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책의 앞표지에 그려진 그림과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보세요.

제목 보고	
그림 보고	

※ (2~3) 책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익숙했던 단어들에 갑자기 물음표를 달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래! 이게 다 짹짹 양말 때문이야!

척 하면 척, 둘도 없는 단짝 승주와 같은 반이 된 하나.
 하지만 운명이라 생각했던 둘 사이에 ‘유리’라는 존재가 끼어드는데…….
 단짝이란 무엇일까? 우정이란 무엇일까?
 꿈이란, 씩씩함이란 나다움이란?
짹짹 양말 신세가 된 하나가 마주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질문들,
 ‘강하나답게’ 풀어 낸 씩씩한 대답들을 지금 만나 보세요.

2. ‘짹짹’란 서로 짹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한 별을 의미합니다. 뒷글을 읽고 밑줄 친 ‘짹짹 양말 신세’가 무엇을 나타낼지 추측해보세요.

↳

3.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써보세요.

↳



독서 중 비유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작작이 양말』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1)~(3)의 각 밑줄 친 비유적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속마음을 써보세요.

- 비유적 표현이란,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 비유적 표현에 등장하는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1) 승주가 지구라면 우리는 달이다. 우리는 승주 옆에 딱 붙어서 승주 주위를 뱅뱅 돈다. 나는 **해왕성쯤 되는 것 같다**.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 차라리 혜성이라도 되고 싶다. 휘이익 날아가서 지구랑 달 사이를 파고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혜성은 지구에 잠깐 다가가갈 수는 있어도 옆에 머물 수는 없다. 다시 멀리 떠나야 한다.

(2) 토끼 잠옷을 입은 네 명이 구석에 모여 쪼그려 앉아 있고 나만 서 있으니 꼭 토끼집에 쳐들어간 **늑대가 된 기분**이었다. 하필 내 추리닝은 시커먼 색깔이었다. 늑대 털처럼.

(3) “왜 그렇게 카메라 렌즈를 보고 계세요?”

“음, 내가 꼭..... **카메라 렌즈 같아서**.”

“네? 얼굴이 동그해서요? 흐흐.”

“하하하, 그건 아니고. 음..... 나도 이 렌즈처럼 언제든지 깨져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 중 만약 내가 등장인물의 입장이라면?

※ 『작작이 양말』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주인공 ‘강하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1) “저기, 승주야.” 승주가 나를 돌아봤다. 긴장해서 입술이 바짝 말랐다. “나랑 같이 줄 서자.”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해냈다. 이제 다 됐다. 그런데 승주가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승주는 나랑 서기로 했어.” 유리가 승주 팔을 잡아끌었다. 승주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유리 옆에 섰다. 승주 옆에 서 있던 나는 어정쩡하게 뒷줄로 빠졌다. 슬쩍 주위를 둘러봤지만 혼자 서 있는 여자아이는 없었다.

⇒ 만약에 내가 하나의 입장이라면 승주에게 (적극적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할 것이다. / 적극적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2) “하나야, 내가 발표하면 안 돼?” 유리가 갑자기 얼마나 친한 척을 하는지 온 팔에 달살이 돌을 정도였다. 부모님들 앞에서 주목받고 싶나 보다. 투명한 유리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속마음이 뻔히 보였다. 유리 이름이 괜히 유리가 아니구나. 그냥 바꿔 줄까..... 발표하기 귀찮은데. 갈등하던 나는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학교에 온다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안 하던 화장까지 한 엄마.

⇒ 만약에 내가 하나의 입장이라면 유리에 발표 기회를 (양보했을 것이다. /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3) 교감 선생님이 버럭 화를 냈다. “그리고 옷차림이 그게 뭐니까? 내가 웬만해서는 선생님들 옷까지 지적하지는 않는데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신경 좀 쓰세요. 신경 좀!” “저 오늘 엄청 신경 쓴 건데요?” 오늘 선생님은 노랑 형광색 옷을 입고 왔다. 티셔츠, 바지, 양말, 운동화까지 모두 노란 형광색이었다. 정균이는 어린이 보호 구역 패션이라고 불렀다. 나는 선생님이 걸어 다니는 형광팬 같다고 생각했다.

⇒ 만약에 내가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교사에게 적합한 옷차림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내 아늑한 텐트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디 얼마나 무거운지 보자니까!" 나는 바구니를 잡아당겼다. 우리는 양쪽에서 바구니를 잡고 실랑이를 했다. 철퍼덕. 땡그랑!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비커가 깨져 버렸다.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놀라서 달려왔다. 아이들이 속닥속닥 나와 우리가 싸운 걸 일러바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선생님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깨진 비커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와 유리가 서로 치우겠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다칠 수 있다며 물러서라고 했다. 비커 조각을 다 치운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얼마나 혼이 날까, 나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그런데 왜 나만 부르는 걸까.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무슨 참이길래 그래? 나도 배워 보자."

(나) "정 선생, 내일이 학부모 참관 수업인데 교실 환경 미화가 이게 뭐예요?"
교감 선생님 목소리였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었다. 오죽하면 선생님들도 멀리 교감 선생님이 보이면 다른 길로 빙 돌아갈 정도다.
"저희 반 아이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선생님의 경쾌한 목소리.
"애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어찌자는 겁니까? 교실을 연예인 사진으로 도배를 해 놓았잖아요."
"교실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니 아이들에게 맡긴 건데요?"

(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 길을 착착 찾아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어중간한 것 같았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길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걸 특별나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일 등 못 할 거면 관두는 게 낫대요. 써먹을 데도 없으면서 시간만 잡아먹는다고요. 아빠 말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준비할까 봐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서른 전에 붙을 거래요. 흐흐."
선생님이 종이를 접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꼭 잘하고 쓸모 있는 일만 해야 해? 네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림 그리는 게 즐거우면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 봐. 남들에게는 몰라도 네 자신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야."

1. (가), (나)를 참고할 때, 담임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써보세요.

⇨

2. (다)에서 선생님은 잘하든 못하든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아빠는 특별히 잘하는 일이 아니면 관두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선생님과 아빠의 생각 중에 어떤 생각에 더 공감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써보세요.

⇨

3.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느끼나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승주와 '나'는 친구였을까?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셋! 둘! 다섯! 사회자는 계속 수를 외쳤다. 수에 맞게 몽친 아이들은 다가오는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밀어냈다.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몽쳐진 아이들을 헤집고 들어가기도 했고, 미리 포기하고 어색하게 서 있기도 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짝을 찾지 못한 아이는 탈락이었다. (중략)

"잠깐만요! 건의할 게 있어요."

나는 사회자 아저씨를 마주 보고 섰다. 사회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저한테요?"

"네. ㉠앞으로는 짝 짓기 게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왜요?"

"서로 눈치 보고, 편 가르고, 밀어 내고, 정말 최악의 게임이에요."

(나) "승주야, 네가 왜 우리 같은 애랑 노는 건지 모르겠어. 너랑 우리는 정말 안 맞아. 네가 착해서 끌려다니는 건 알지만……."

"나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좋고, 함께 놀면 재미있어서 같이 다니는 거야. 넌 내가 바보로 보이니?"

㉡나는 놀란 눈으로 승주를 바라봤다. 우리가 좋다고? 우리랑 놀면 재미있다고? 나는 왜 그동안 승주가 유리에 끌려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우유부단하고 순해서 유리 팔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답은 너무도 간단했는데. 승주는 나보다 유리를 더 좋아했던 것뿐.

(다) 나는 나와 승주가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단짝이라고 생각했다. 멋진 인연이라고. 그래서 다시 승주와 단짝으로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형 뽑기처럼 우연히 단짝이 되었는데도 모르겠다. 뽑기 좋은 위치에 있는 인형이 뽑히는 것처럼. 우리도 우연히 가까이 있어서 친해진 게 아닐까. 우연히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었고, 우연히 첫날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만일 우리가 아이스라테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알기 전에 각자 다른 아이와 먼저 친해졌다면, 우리는 더 가까워지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나는 다른 아이와 단짝으로 지냈을지도 모른다. 내가 승주에게 너무 바보같이 매달렸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자 승주에 대한 미움이 조금 녹아내렸다.

1. (가)에서 '나'가 사회자에게 ㉠과 같은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나)에서 승주의 말을 들은 하나가 놀란 이유는 무엇인지 유추해서 써보세요.

⇨

3. (다)에 나타난 '그런 생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일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짹짹 양말이어도 괜찮아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 말대로라면 선생님은 꽃길을 버리고 자갈길로 스스로 걸어가 버린 셈이다. 남들에게는 꽃길로 보이는 길이 선생님에게는 자갈길이었나 보다.

나는 카메라 수리점에서 챙겨 온 깨진 렌즈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수리점 아저씨는 깨져서 쓸데도 없는 걸 왜 가져 가냐며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굵은 금이 간 렌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선생님의 선택을 이해해 주고 싶었다. 응원해 주고 싶었다. 나는 선생님에 대해 조금 더 아니까.

(나) 아침 일찍 교실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사진을 들고 교실 뒤로 갔다. 연예인 사진을 떼 버린 클럽보드는 썰렁했다. 클럽보드에 아이들 사진을 하나씩 걸었다. 네 개의 클럽보드가 비었다. 나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사진에 찍히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어제 밤새워 그린 그림이었다. 선생님 사진처럼 얼굴을 크게 그리고 여백은 조그만 꽃과 나뭇잎 모양으로 빼곡하게 채웠다. (중략) 그리고 마지막 그림의 주인공, 유리. 어제 그럴까 말까 끝까지 고민하게 만든 얼굴. 유리 클럽보드에 그림을 끼워 넣었다. (중략)

“너희들, 내가 좀 잘 추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하기야? 난 그런 거 싫은데.” 나는 일부러 너스레를 떨었다. 채윤이가 웃음을 터트렸다.

“하하하. 너 춤도 그림도 거기서 거기거든?”

“그럼 왜…….”

“웬래 강하나 같아서. 5학년 올라오고 나서 너 좀 이상해 보였거든. 지금처럼 털털하고 장난치고, 그런 게 강하나지.” 예전에 나랑 같은 반이던 아이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나도 아이들을 따라서 웃었다.

(다) 호들갑 떨며 뛰어가기는 정균이 뒷모습에서 유독 짹짹 양말이 눈에 들어왔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같이 발맞춰 걷어가는 짹짹 양말. 나는 지금 짹짹 양말이다. 여전히 우리 반 누구와도 단짝이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다. 우리 반에는 발맞춰 보고 싶은 아이들이 가득하니까.

1. (가)에서 하나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깨진 렌즈를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밑줄 친 ‘굵은 금이 간 렌즈’는 하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

2. (나)에서 주인공 강하나가 작품 초반에 비해 성장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

3. 작가가 이 책의 제목을 ‘짹짹 양말’이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를 참고하여 답해봅시다.

⇒



독서 후 토론과 논술 ① 선생님의 결정에 공감할 수 있을까?

※ 다음은 『짹짹 양말』의 본문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누리왔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여행가를 꿈꾸며 학교를 떠나기로 한 선생님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공감할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로 나의 입장을 정하고, 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써봅시다.

(가) “에, 나는 한창 예민한 나이인 여러분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정나래 선생님이 떠난 이유를 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려졌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요. ㅎㅎ, 2교시 때 새 담임 선생님이 바로 들어올 거니까 자습하도록 하세요.” 교감 선생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교실을 빠져나갔다. 채윤이가 큰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대부분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교사라는 직업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 이번 학년 시작 전에 그만두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것, 여행가가 선생님의 꿈이고 지난번 사고 이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맡는 것이 우리에게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미래가 두렵지만 헤어쳐 나가고 싶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안하다는 말.

(나) “너희 선생님 학교 그만뒀다며? 왜 얘기를 안 해? 너희 선생님 옷차림 보고 눈치는 했지만 참철도 없다. 철도 없어.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쫓겨. 나중에 봐라. 돌아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 엄마 말을 들으니 화가 났다.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확신하는 건지.

(다) “사진학관에 가고 싶었어. 부모님이 반대해서 교대를 갔지.” 나는 깜짝 놀랐다. 부모님 의견에 따라서 대학을 가다니. 지금 선생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 무시무시한 교감 선생님 앞에서도 당당하던 선생님인데.

“왜? 이상해? 우리 부모님 엄청 무섭거든.” 선생님이 빙긋이 웃었다.

“선생님 부모님은 엄청 자유로우실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좀 다르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그래? 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안전한 학생이었어. 부모님한테 짹짹도 못 했지.” (중략)

“계속 안전하게만 살다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더라. 20년을 남들 말만 들으면서 살았더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더 늦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껏 해 보려고 노력 중이야.”

주제 : 학교를 떠나기로 한 선생님의 결정에 공감할 수 있을까?

나의 입장 : 선생님의 결정에 (공감할 수 있다. / 공감할 수 없다.)
왜냐하면,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discussion question.



독서 후 토론과 논술 ② 작품의 뒷이야기 구성하기

※ 다음은 『짜짜이 양말』의 본문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아래의 <조건>에 따라 주인공 '강하나'가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뒷이야기를 완성해보세요.

(가) 지금 나는 유리보다도 유리 편을 드는 승주가 더 밋고, 승주보다도 선생님이 더 밋다. 머리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번 사고에 충격을 받고 급히 떠날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선생님이 내내 힘들었을 거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화가 났다. 선생님께서 버림받은 기분까지 들었다. 선생님이 사라지고 나니 그동안 선생님이 나를 챙겨 준 일들이 계속 떠올랐다.

비커를 깬 날 나를 혼내는 대신 춤을 가르쳐 달라고 한 일, 교실 환경 미화를 하던 날 그림을 계속 그려 보라고 한 일, 수련회 조에 넣어준 일, 내가 춤추는 무대에 올라와서 같이 춤을 춰 준 일, 수련회 날 밤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준 일, 내 그림을 소중하게 가져가 준 일……. 선생님은 내 아늑한 텐트였는데. 그래서 깜깜한 밤을 버틸 수 있었는데. 아침이 오기도 전에 텐트가 접혀 버렸다. 나도 안다. 계속 텐트 안에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언젠가는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나) 스승의 날 아침. 나는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살며시 열었다. 구겨진 티셔츠가 보였다. 소매 하나가 서랍 옆으로 빠져나온 모습이 나 좀 꺼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티셔츠를 꺼내 들었다. 승주는 승주고, 나는 나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나는 마음을 다잡고 티셔츠를 착착 접었다. 원래 입던 대로 옷을 입고, 흰 티셔츠는 가방에 챙겨 학교에 갔다. 교실 뒷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앞문으로 가니 교실 안에서 박수 소리와 함성이 들려왔다. 살짝 들여다보니, 앞문에서 교탁까지 빨간색 천이 깔려 있고 한 아이가 그 위를 걷고 있었다. 채운이는 휴대 전화를 들고서 동영상을 찍었다. 오호. 레드 카펫? 나는 얼른 흰 티셔츠를 꺼내서 옷 위에 겹쳐 입었다.

(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나? 게시판이 가득 채운 아이들 얼굴이 새삼스러워 보였다. 3월부터 거의 세 달 동안 승주만 보느라, 승주를 가리는 유리와 다투느라, 다른 아이들을 깊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사진 하나하나를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선생님이 포착한 아이들 얼굴은 묘한 데가 있었다. 금방이라도 어떤 말을 할 듯한 표정들이었다. 마치 사진을 보는 나를 향해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조건> - 주인공 강하나의 입장에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지 쓰세요.
- 선생님이 떠난 이후, 교실에서 일어난 변화와 강하나 개인에게 있었던 변화에 대해 언급하세요.



독서 후 창의융합_ 가장 나다운 것

※ 여러분이 '가장 나다운 것'이라는 주제로 친구들 앞에서 2분 동안 발표를 해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제와 관련한 글감을 찾고, 발표문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봅시다.

1단계. <나에게 질문하기>

'나'에게 할 수 있는 질문 만들기	
---------------------	--

2단계. <글감 찾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 자신을 소개해보세요.

키워드	'나는 _____ 이다.'라는 형식의 문장을 완성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1.	
2.	
3.	

3단계. <비주얼씽킹>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글과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내용도 이미지로 정리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개요 작성하기> 발표문에 대한 개요를 구성해보세요.

제목	
처음	
가운데	
끝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

1. (예시답안)

- 제목을 보고: 모양과 색이 같고 짝이 맞는 양말을 신지 않아도 충분히 멋있고,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 이야기일 것이다.
 - 그림을 보고: 앞표지 그림에는 양말을 신은 아이들의 발모양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혼자만 짝짝이 양말을 신고 쑥스러워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했을 것이다.
2. (예시답안) ‘짝짝이 양말 신세’는 단짝이었던 친구를 빼앗기고, 제대로 된 짝을 찾지 못한 주인공 ‘하나’의 외로운 처지를 표현하는 것 같다.
3. (예시답안)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진실성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믿음이 우정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이다.

■ 독서 중

◎ 비유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예시답안)

- (1) 승주와의 사이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
- (2) 토끼를 공격하고 먹이로 삼는 늑대처럼 아이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 기분이다.
- (3) 나는 카메라 렌즈처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약한 존재이다.

◎ 만약 내가 등장인물의 입장이라면?

(예시답안)

- (1) 만약에 내가 하나의 입장이라면 승주에게 나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해지지 않더라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 (2) 만약 내가 하나의 입장이라면 유리에게 발표 기회를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평한 방법으로 발표 기회를 얻은 것이며, 하나의 어머니도 유리의 어머니처럼 딸의 발표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3) 만약 내가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교사에게 적합한 옷차림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공적인 장소이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내 아늑한 텐트

1. (예시답안1) 학생의 실수를 이해하며 포용할 수 있는 선생님이다. 하나와 유리가 다투다가 비커를 깨뜨리는 실수를 했을 때도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고 하나가 당황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다.

(예시답안2)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이다. 환경 미화를 할 때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다.

2. (예시답안) 잘하든 못하든 좋아하는 것을 해봐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공감한다.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면 실력이 늘고 잘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순간에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가이드)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써봅시다.

답안 생략.

◎ 책 속으로 ② 승주와 ‘나’는 친구였을까?

1. (예시답안) ‘짝 짓기 게임’은 사회자가 말하는 숫자에 맞춰 짝을 찾아야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눈치를 보고 편을 가르고 서로 밀어내며 탈락자를 만들어야만 한다. 하나가 게임을 하지 말자고 제안한 이유는 게임의 특성이 아이들에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예시답안) 하나는 승주가 착해서 유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고 자신을 밀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승주는 유리와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기 때문에 유리를 친구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승주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보다 유리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무척

[예시답안과 가이드]

놀랐을 것이다.

3. (예시답안) '인형뽑기'처럼 승주와 하나도 우연히 친해졌을 뿐이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친구 관계는 가까워지고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 모습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

◎ 책 속으로 ③ 짝이 양말이어도 괜찮아

1. (예시답안) '굵은 금이 간 렌즈'는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이 담긴 물건이다. 렌즈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는 렌즈를 보면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해주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나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예시답안) 고민 끝에 유리의 그림을 그려서 클립보드에 끼워 넣는 부분이다. 하나는 처음에 유리 때문에 자신과 승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수련회에서 유리가 일부러 하나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던 일, 스케치북을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린 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과거에 왕따였다는 사실을 함부로 말하며 하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등. 유리는 선생님과 친한 하나를 질투하며 때로는 피해자처럼, 때로는 가해자처럼 하나와의 관계에서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그런 유리의 그림을 하나가 그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유리를 배척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처럼 동등하게 대하려 했다는 점에서 하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3. (예시답안) 짝이 양말은 단팍을 찾지 못한 주인공 하나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의 전반부에게 하나는 모든 일이 짝이 양말 때문이라며 화를 내는 반면 결말에서의 하나는 여전히 반 아이들 중 누구와도 단팍이 되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직 단팍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반 아이들 누구와도 단팍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팍'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이 소설에서는 말하고자 한다. '짝이 양말'은 이러한 소설의 주제를 가장 잘 부각하여 드러낼 수 있는 소재이다.

◎ 토론과 논술 ① 선생님의 결정에 공감할 수 있을까?

(예시답안1)

[예시답안과 가이드]

선생님의 선택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교사가 아닌 여행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것 또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강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선생님이 교사로서 행복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난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예시답안2)

선생님의 선택에 공감할 수 없다.

선생님은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짝이 없는 학생의 마음을 헤아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며, 권위적인 교감 선생님과 맞서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이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또한 여행가로서의 삶이 더 낫다고 확신할 근거는 없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과 여행가로서 사는 것은 다르다.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만큼의 위험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 토론과 논술 ② 작품의 뒷이야기 구성하기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멋진 선생님께,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강하나입니다. 전보다 더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님이 주신 카메라는 고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기 안에 들어 있던 필름을 인화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아마도 선생님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해서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나 봐요. 저는 우리 반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무척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늘 제게 말을 걸어주는 정균이도 있고, 늘 제게 웃음을 지어주시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주었는데도 눈치를 चे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자유롭게 세상을 느끼고 있나요? 사진 중에는 제가 찍은 선생님의 뒷모습도 있어요. 어디에 계시든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스승의 날, 선생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대신 선생님처럼 자유롭게 웃을 입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나는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정해진 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처럼 독특하게 웃을 입거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웃을 입고 패션쇼를 했어요. 패션쇼 동영상은 전교생이 거의 다 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가을에 있을 축제에서 학교별로 패션쇼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축제에 오신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선생님, 나중에 돌아오면 우리 꼭 만나요. 그때까지 선생님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202△년 가을
 선생님의 제자 강하나 씀

◎ 창의융합_ 가장 나다운 것

(예시답안)

1단계. <나에게 질문하기>

[예시답안과 가이드]

'나'에게 할 수 있는 질문 만들기	(예시답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나다운 것을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가장 나다운 것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다움'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화, 운동, 수학, 우주 등)는 무엇인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나요?	

(가이드) '나'에게 궁금한 점을 떠올려 보고, 자신이 만든 질문에 대해 답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 <글감 찾기>

(예시답안)

키워드	'나는 ____ 이다.'라는 형식의 문장을 완성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1. 취미	나는 산악인이다. 산에 가면 풀냄새가 나는 울퉁불퉁한 길을 천천히 걸을 수 있어서 좋다. 산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느낌이 든다.
2. 태도	나는 연결고리이다. 나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어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3. 가치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의견을 표현할 용기,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는 용기.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3단계. <비주얼씽킹>

(가이드) 비주얼씽킹이란 자신의 생각을 글과 이미지를 통해 정리하여, 이해력을 키우는 시각적 사고 방법입니다. '나'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짧은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머릿속에 있던 '나다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요약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답안 생략.

4단계. <개요 작성하기>

(가이드)

[예시답안과 가이드]

제목	-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생각해 봅시다.
처음	- 발표 주제, 발표하는 목적 등을 먼저 소개해 주세요. - 비유법을 활용해, 나를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보세요. - 청중의 배경지식, 감정 등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정중한 말투를 사용해 주세요.
가운데	-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짜임새 있게 발표해 보세요. - '가장 나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장 나다운 것은 씩씩함, 현명함, 유쾌함이다.'와 같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중심 단어로 요약해서 먼저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나의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주세요. - 발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해 보세요.
끝	-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주장을 강조합니다. -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거나, 당부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예의바르게 끝인사를 합니다.